

# 신안 퍼플섬 활용 기업 마케팅 눈길

### KCC 퍼플섬 색 입힌 제품 홍보 OB맥주는 천일염 수제 맥주 광고

신안군 안좌면 박지도·반월도 '퍼플섬'을 활용한 기업 광고가 잇따라 선보여지고 있다.

페인트 제조 기업 KCC는 퍼플섬에 색을 입힌 페인트 제품을 홍보했고, OB맥주는 신안 천일염에서 영감을 얻은 수제 맥주를 광고하고 있다.

KCC는 자사 제품을 국내외 페인트 대리점, 건축자재 유통 업체가 배포하는 홍보 책자에 퍼플섬을 등장시켰다.

영문으로 제작된 이 책자에는 퍼플섬 사진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조성에 자사 페인트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KCC는 건축용 내·외장재, 칠감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OB맥주는 퍼플섬과 신안 특산물인 천일염에서 영감을 받아 '보라색 소금맥주'를 만들었다.

이 수제 맥주는 신안 퍼플섬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만들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소금을 더했다.

퍼플섬의 인기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보라색 재킷을 착용하고 퍼플섬을 찾았다.



보라색 '퍼플섬'으로 알려진 신안군 안좌면 박지도·반월도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퍼플섬은 이제 신안을 찾으면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했고, 세계관광기구가 인증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그 인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퍼플섬은 세계관광기구가 최우수 관광마을로 인증했다.

올 한 해 신안군 인구의 10배가 넘는 4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신안군 측은 예상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퍼플섬의 상징 가치를 높이는데 민간 업체와의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퍼플섬을 전 국민,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섬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관공서 사칭 문자 결제 사기 주의하세요

### 목포시 피해 주의 당부

목포시는 시민들에 관공서 사칭 문자를 통한 결제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고 12일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에는 무단투기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과 조회 링크가 담겨있다.

내용을 보기 위해 접속 주소창을 열어보면 소액 결제 또는 정보 유출 피해를 볼 수 있다.

목포시는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내용을 행정복지센터에 전하고, 다른 기관·단체에 예방 홍보를 요청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사칭 문자 결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사고 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개인 번호를 통해 발송된 과태료 조회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영암군 재생에너지 국비 10억4500만원 확보

### 태양광 발전시설 350개소 설치

영암군이 정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다.

주민 참여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지역·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 및 공공·상업 건물 흔재 지역에는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한다. 영암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주택·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350개소, 주택 태양열 42개소 설치에 나선다.

영암군은 올해 3월부터 공모 사업을 준비해왔다. 공동 참여자(컨소시엄) 평가와 선정은 마치고 4-6월 수요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 말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다.

이번 공모 국비 확보로 영암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네 차례 선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 5년 동안 국비 61억원을 확보, 총 135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비로 지난 2020년 339개소, 2021년 468개소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도포면 등 5개 면 408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사업까지 더하면 11개 읍·면 1607개소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1422개소, 태양열은 185개소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완도군 최남단 여서도까지 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

### 국토부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 정도리 화흥포항서 실증 시연회 1.5kg 물품 신고 50km 왕복 비행

완도군이 외딴 섬까지 무인 항공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시연회를 최근 열었다.

드론 비행 실증 시연회는 완도읍 정도리 화흥포항에서 열렸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회에서는 장기체공 수직 이착륙(VTOL) 드론 비행을 실증했다.

완도군은 국토교통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돼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전보다 드론의 모형과 중량, 거리, 비행시간 등이 개선됐다.

이날 완도군은 무인 비행체에 1.5kg의 물품을 신고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까지 총 50km 거리를 왕복 비행하게 했다.

완도군은 읍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청산 여서도까지 드론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상용화할 방침이다.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드론 산업 육성 기



완도군이 화흥포항에서 '드론 배송 비행 실증 시연회'를 열고 있다.

<완도군 제공>

반 시설을 확충하고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 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거리 드론 배송 실증으로

드론 활용 영역 확대와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 스티로폼 부표 친환경 인증제품 보급

해남군이 13일부터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부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스러지는 탓에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남은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에 따라 지난해

110억원에 이어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24억원에 투입해 인증 부표를 보급하고 있다.

인증 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군은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조율을 높여 교체 비용의 총 80%까지 지원한다. 80%를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게 해남군의 설명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12월1일까지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 보조사업' 신청

진도군은 오는 12월1일까지 '202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식량 작물 ▲원에 특작 ▲친환경 농업 ▲농산물가공 등 총 4개 분야이다.

각종 농기자재,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37개 사업이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해당 읍·면 사무소를 찾아

사업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중복·편중 지원 여부와 사업성 검토 등 사업별 적격 여부를 자체 검토할 방침이다. 소관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내년 1월 사업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